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8년 3월 1일
음력 1월 24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 The chongji news | 불기 2552년 제100호

'총지종보' 100호 발행

종단 홍보-한국밀교 현대화 중추적 역할

▲1995년 10월 발행된 총지종보 창간호

1995년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된 총지종보가 지령 100호를 돌파했다.

총지종보는 1995년 10월 16일 8면으로 창간된 이래 2004년 9월 12면 증면, 2005년 12월 종보 편집위원회 구성, 2006년 11월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7년 12월 전국 사원 종보통신원 발대식 거행, 등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 왔다.

이번 100호 발행으로 총지종은 100호 발간 신문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종단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총지종보가 앞으로 불교계 주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종보 발간과 관련한 후원을 비롯해 전문인력 충원, 전국 통신원 제도 활성화 및 지회 결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한편 효강 종령 예하는 축하 법어를 통해 "새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총지종보 100호가 발행되어 더욱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종단의 얼굴로서, 포교지로서 일반인들에게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와 법을 전하고, 진언밀법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송 통리원장은 축하 메시지에서 "그동안 총지종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단과 밀교수행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냈다"고 격려했다.

9면 100호 기념특집 기고
10면 100호 기념특집 종보 발자취
11면 100호 기념특집 축하 메시지

종보 100호 발행 축하법어

효 강
불교총지종 종령

봄의 기운이 서서히 가슴속에 여미어 옵니다. 새파란 풀잎과 예쁜 꽃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걸으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질게 차가운 겨울의 기운을 잘 인고하고, 인욕하며 솟아나는 새생명들이 신비스럽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총지종보 100호가 발행되어 더욱더 뜻깊은 의미가 부여됩니다. 불교의 세계화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생활불교 종단으로서 불교의 진리와 밀교의 수승한 전법을 널리 알리고자 총지종보를 처음 발행하였을 때의 감회가 새삼 느껴집니다.

일찍이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시면서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불교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중생의 요구는 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교화방편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고쳐나가려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종단에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을 굳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현세에서 자신의 불성을 발현하는 것도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며 밝고 단단한 지혜가 확립될 때 혼탁한 현세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若人慾了知(약인욕요지) 三世一切佛(삼세일체불) 應觀法界性(응관법계성)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진실)들을 알고 싶거든 마땅히 법계의 근원을 꿰뚫어 볼지니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졌음이라!"

중생을 제도하고 자신의 불성을 체현하는데 있어 "지혜"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인고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하지 않고서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삶의 이정표요, 연료이자 불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증득하는 것은 자기자신이 부처임을 알아가는 참구를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지종보는 종단의 얼굴로서, 포교지로서 일반인들에게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와 법을 전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런 진언밀법을 전파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무량중생들이 불법의 세계에서 극락정토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종보 100호 발행 축하 메시지

원 송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불교총지종 신문 제100호 발행은 종단은 물론 전 불교계가 경축할 일입니다. 이는 종단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호 발행의 예는 불교계신문과 종단 기관지 통틀어서도 매우 드문 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창간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문 발행과 관련된 종단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동안 총지종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신문을 발행해 오며 종단과 교도간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냄으로써 종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번 100호 발행을 맞이하여 현대사회의 중요한 포교매체 수단인 신문 제작과 관련해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종보는 지금에 머물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교계 유명 신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밀법 홍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 발전과 나아가서는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전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맞이하여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진호국가불공 정진법회 입재

4월 8일까지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총지종은 2월 20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7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입재불사를 봉행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궤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되며,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은 호국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홍포하고 좋은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밀교 고승인 명랑법사와 혜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한편 종조법설집에는 "49일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희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송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염송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청주 혜정사 본존, 만다라 봉안불사가 2월 19일 봉행됐다.

종조법설

수행자는 오욕을 떠나 고행한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만큼 그의 생애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도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고해진다.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거쳐서 진리를 체득한다. 인간이 행복해지면 오욕(五慾)만 높아질 뿐이지 진리(眞理)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오욕을 떠나서 고행을 하는 것이다.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주창하며 창간된 총지종보가 100호를 발행했습니다.
총지종보는 그동안 종단의 얼굴로서, 포교지로서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와 법을 전하고, 진언밀법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종 령 효 강
통 리 원 장 원 송
중앙종의회 의 장 우 승

법 장 원 장 법 공 사 감 원 장 지 성 교 육 원 장 화 령

서울경인 교구장 정법계 부산경남 교구장 대 원 대구경북 교구장 지 공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서울경인 지부장 김은숙 부산경남 지회장 심인록 대구경북 지회장 권오남 충청전라 지회장 민순분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사설 종보 100호 발간에 부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살도 실천의 매개가 되겠다는 취지로 창간된 총지종보가 오늘로서 지령 100호를 맞이하였다. 1995년 10월 16일 창간 당시 총지종보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많은 불교계 저명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으며 창간축하연에 동참하여 총지종보의 발전을 축원해 주었다. 돌이켜 보면 온갖 우여곡절을 견디며 1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힘겨운 여정이었다.

종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종단이 드문 상황에서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지만 이제 겨우 100호를 돌파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창간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종보 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한 척박한 풍토에서 열악한 인력으로 100호가 발간된 것은 그동안 종보 발간을 지지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중들의 원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통밀교종단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종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말하자면 한 종단의 정신적 매개체가 되는 종보는 대외적으로는 종단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과 종지를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종도들이 한 마음으로 종지를 받들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게 한다. 특히 종보를 통하여 종도들 상호간의 정신적 유대를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종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원에 인색한 부분은 아쉬운 일이다. 아무리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지금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면이 가져다주는 느낌은 그보다 훨씬 강렬하기 때문이다.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종보는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지 없애거나 축소해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선 경비가 조금 더 든다고 해서 발간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무형의 거대한 효과를 놓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제 지령 100호를 맞이하여 총지종보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승직자와 교도 대중은 종보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보의 발간 필요성을 대승적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종보발간에 대한 모든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물질적 후원 만이 아니라 실제로 종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만으로도 종보는 양과 질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종보 발간 전담 부서를 확정하고 여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발탁하고 양성해야 한다. 그동안 종보 발간의 중요성이 간과된 결과 비전문가인 통리원 교무가 실무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전문적인 일에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종보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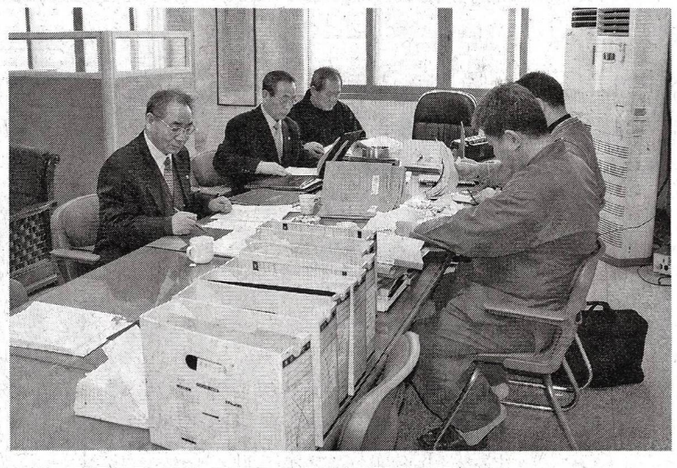
셋째,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보통신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통신원 발대식은 가졌지만 그 이후 이를 매개로 한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종보통신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총지사 중심의 현 편집진이 종보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고려 사항 이외에도 종보가 명실상부한 보살도 실천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무 행정의 중심에 있는 통리원 집행부의 종보 발간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의지이다.

종보 발간에 대한 신념과 비전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종단의 역동성과 더불어 이제 총지종보도 지령 100호를 맞이하여 한 계단 더 성숙해 질 것이다. 사부 대중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바란다.

사감원, 통리원 등 과년도 결산감사

"종무행정 투명성, 합리성 제고"



사감원은 2월 28일 과년도 결산 감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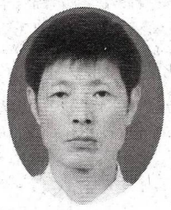
총지종 사감원(원장 지성)은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기36년(2007년)도 정기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기36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축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의 적정성,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 및 인재양성 계획, 승직자와 종무원의 복지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평가 등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감원장 지성 정사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자료정리 및 예산집행면에서 향상되었다"며 "이번 감사는 종무행정 활성화, 교세확장 방안과 각 부서별 활동평가 등을 중심으로 종무행정과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법우 정사는 감사평가회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집행의 유효성에서 대체로 무난했다"며 다만 "사본대장의 미정리와 사원신축 관련 사항 누락 등을 비롯한 몇 몇 부분만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행체험 44



양 재 범 각자

〈벽롱사〉

저는 아내(이희숙)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기에 아내는 지금도 병중이지만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 십년을 서울 벽룡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아내인 이희숙 보살은 수원에 있는 연세의원에서 내시경을 받다가 위암3기라는 천청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주대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1년동안 항암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제를 먹고 있는 6개월동안 구토증과 헛구역질 등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6개월의 고통을 이겨내고 정기검진을 받았더니 위는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다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위는 완치되었는데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1년만에 다시 아주대병원에서 간의 3분의 2을 절단하는 간암수술을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2005년 8월 새벽4시경 백혈구치료제를 맞았던 아내가 갑자기 온몸에 열이나고, 혈압이 내려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며, 친척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병실에서 불공하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아내를 살려주시면 부처님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옴마니반메훔을 큰소리로 염송하며 불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부처님께서는 아내를 가엾게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간지 8일만에 아내는 퇴원하게 되었고, 6개월간 항암주사치료를 받고 간암은 완치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아내가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라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년뒤 정기검진에서 암세포가 복강에 전이되어 다시 함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재발하면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통리원 처무로 근무하면서 총지사 서원당과 경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처무로 근무하면서 이 모든 일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불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지캠페인

숭례문 방화 교훈

600여년 동안 서울을 지킨 국보1호 숭례문이 한사람의 방화로 불타버렸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한민족의 얼이 사라졌다' 면서 앞다투어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통곡을 하였고, 위령재와 추모식을 올리는 등 그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숭례문이 불타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의 문화재를 넘어 우리 인류의 소중한 문화재로서의 숭례문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숭례문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화재임에도 불과하고 한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방화사실과 관리자 하나 없는 안일한 관리현실, 소방시설의 부실과 전통건물의 특성에 대한 무지를 한탄하는 것이지, 어찌 숭례문이 불탔다고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불탄 것 같이 보도하는 언론이 야속하기 까지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숭례문을 정부세금 보다는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숭례문 복원을 위한 국민모금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자발적이어야 할 국민성금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대한 반발과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도 거셀 전망이며 후진국형 국민성금 모금 방안이 국보를 되살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어김없이 방송사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국민 성금을 모으고 있다. 과거의 평화의댐 건설, IMF 금모우기 운동.... 새 대통령은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슬픈 일을 가지고 국민들 호주머니나 기웃거리는 과거 대통령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면서 비난 여론이 상당하지만, 소 한마리 잃었다고 '에라이 X 같은 세상' 하면서 그냥 외양간 놔뒀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던 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제 2, 제 3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국보1호를 보면서 눈물 짓는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졸속복원으로 또 한번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주기를...

알림방

- 3일부터 9일까지 3월 월초 불공이 봉행됩니다.
- 3일 종립 동해 중학교 입학식이 거행됩니다.
- 서울경인교구 상조회(가명 : 미타회) 출범기념법회가 3월 11일 12시 총지사에서 있습니다.
- 31일부터 4월 6일까지 4월 월초 불공이 봉행됩니다.
- 통리원은 1월 29일 통리원 옆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지진(기공)불사를 봉행하였다. 상가건물은 5층 건물로 1층 상가, 2층 문화공간시설 겸 사무실, 3층과 4층은 강공 및 회의시 숙소 겸 문화시설, 5층엔 공부방이 각각 들어 서며 7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총지종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27일 까지

개천사	경 원	1. 31	10,000	단음사	박호열	2.21	10,000	백월사	류승태	2.27	10,000	수인사	지 공	2.26	20,000
개천사	정법수	1. 31	10,000	단음사	박주열	2.21	10,000	백월사	박인국	2.27	5,000	수인사	지희심	2.26	10,000
개천사	대상정	2.22	20,000	단향사	공철봉	2.11	10,000	백월사	박인철	2.27	5,000	수인사	김봉기	2.26	10,000
개천사	경 원	2.25	10,000	단향사	이지곤	2.21	10,000	법천사	김정숙	2.1	5,000	승천사	무명씨	2.21	200,000
개천사	정법수	2.25	10,000	단향사	이은별	2.21	10,000	법천사	시 정	2.22	10,000	실보사	이순옥	2.21	5,000
개천사	이희권	2.26	10,000	만보사	지 성	1. 31	10,000	법천사	원만원	2.22	10,000	실보사	송희준	2.22	10,000
관성사	해 정	1. 31	10,000	만보사	승효제	1. 31	10,000	법천사	박말조	2.22	5,000	실지사	록 경	1. 30	10,000
관성사	정법계	1. 31	10,000	만보사	정덕순	2.1	5,000	법천사	김정숙	2.27	5,000	실지사	법수연	1. 30	10,000
관성사	황성녀	2.13	10,000	만보사	지 성	2.25	10,000	벽룡사	이희숙	2.13	10,000	실지사	이화수	2.4	20,000
관성사	박현숙	2.22	10,000	만보사	승효제	2.25	10,000	벽룡사	한승혁	2.20	10,000	실지사	송우섭	2.4	5,000
관성사	해 정	2.25	10,000	만보사	정덕순	2.27	5,000	벽룡사	원 당	2.20	10,000	실지사	이화수	2.19	10,000
관성사	정법계	2.25	10,000	밀인사	임동수	2.20	10,000	벽룡사	묘심해	2.20	10,000	실지사	송우섭	2.25	5,000
관성사	이혜원	2.27	5,000	밀인사	이재호	2.22	10,000	벽룡사	한우현	2.20	10,000	실지사	정경자	2.27	5,000
기로원	상지화	2.22	10,000	밀인사	신대식	2.25	5,000	선립사	심지장	2.14	10,000	운천사	김성숙	2.11	30,000
기로원	불멸심	2.22	10,000	밀인사	이혜성	2.25	5,000	선립사	김자희	2.14	30,000	운천사	박보경	2.22	20,000
기로원	법장화	2.22	10,000	밀인사	신동희	2.25	5,000	선립사	정복지	2.14	10,000	정각사	김문수	2.12	10,000
기로원	대자행	2.22	10,000	밀인사	신동의	2.25	5,000	선립사	대 덕	2.20	10,000	정각사	변순개	2.12	5,000
기로원	대 관	2.22	10,000	밀인사	이연수	2.25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2.22	50,000	정각사	정남선	2.21	30,000
기로원	수증원	2.22	10,000	밀인사	정정희	2.25	5,000	수인사	권오남	2.4	20,000	정각사	구정희	2.22	20,000
기로원	자선화	2.22	10,000	밀행사	석우성	2.26	20,000	수인사	공경원	2.5	10,000	정각사	윤선자	2.26	10,000
단음사	이규성	2.14	3,000	백월사	류	2.4	10,000	수인사	권오남	2.20	20,000	정각사	자비회	2.26	30,000
정심사	박옥란	2.27	20,000												
제석사	무명씨	2.12	10,000												
지인사	허성동	2.11	20,000												
총지사	최순전	1.30	139,000												
총지사	이인성	2.27	30,000												
총지사	최순전	2.27	198,000												
통리원	지 정	2.22	20,000												
혜정사	최영례	2.14	10,000												
혜정사	입법정	2.14	30,000												
혜정사	서 령	2.25	10,000												
혜정사	혜원정	2.25	10,000												
혜정사	오혜민	2.25	10,000												
화음사	권정희	2.22	10,000												
화음사	강승훈	2.26	10,000												
흥국사	여순애	2.12	10,000												
흥국사	밀공정	2.12	10,000												
	이숙남	2.4	60,000												
	이실강	2.19	1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초승달과 보름달

어느날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착하게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비유하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초승달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름이 지난 달과 같으니라."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름이 지난 달은 차차 줄어들어 마침내 모든 광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초승달은 날마다 광명이 더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기 때문이다."

- 잡아함경(雜阿含經) 중에서

복(福)이란

어느 장자(長者)의 집에 손님으로 간 바라문은 닭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그 댁의 복이 바로 닭벼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수탉을 제게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제자들이 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암 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복이 지팡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장자님, 몸이 좀 불편하니 지팡이를 빌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 복이란 스스로 짓는 것이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바라문의 탄식이었습니다.

- 맹란자 / 수필가

네 명의 아내

아내를 네 명이나 둔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 아내들에게 물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껏 나를 위해 주었으니 이제 내 뒤를 따르겠소?"

그러나 남편에게 음식과 의복 수발을 들었던 첫째 아내는 냉담하게 거절했다.

서로 만나면 늘 기뻐하며 헤어지기를 극도로 싫어했던 둘째 아내 역시 그러했고,

가끔 만나 지난 일을 회상하며 즐겁게 지냈던 셋째 아내도 거절했다.

그러나 그간 별로 돌보지 않았던 넷째 아내가,

"이미 한 평생을 같이 했는데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하고 따라 나섰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아내는 사람의 육체요, 둘째는 재산이며, 셋째는 친지이고 넷째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닦은 마음 뿐이다.

- 아함경에서

이달의 명상 실천하는 사람의 말은 메아리가 크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지르르 할지라도 그 알맹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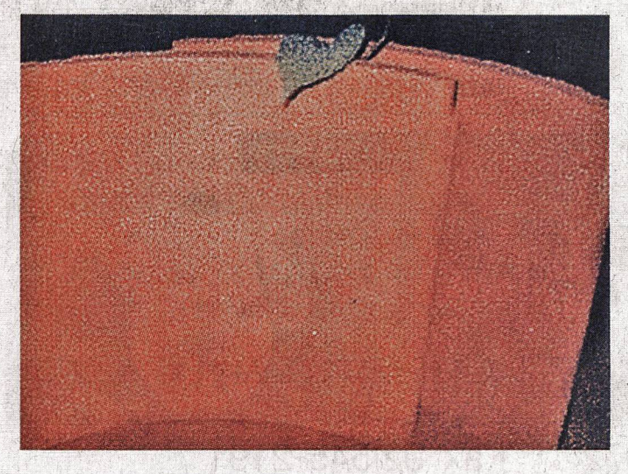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법구경』 중에서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여인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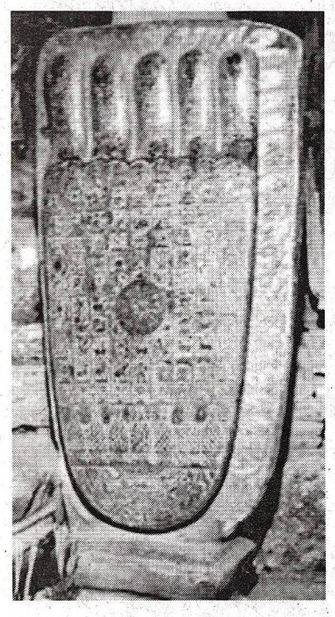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❶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❷ 변비가 심하신 분은 둥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데워주는 모습 ❸ 무좀,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❹ 옆구리 결림 등에 둥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❺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❻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❼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❽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엉치통 등)

세계속의 불교 ⑧

라오스의 불교 (Buddhism in Laos)



수타하디스트 비석.

라오스는 서쪽에 태국, 동쪽에 베트남, 북서쪽에 버어마, 남쪽에 캄보디아 사이에 놓여진 대륙국가이다. 지도상으로 남부대륙에 위치한 라오스는 캄보디아의 카메르와 태국의 타이와 연결되어 있다. 1천500년 전에 태국 종족들은 남서아시아에 이주하여 오래전에 살고 있었던 크메르 종족과 조우하기 전까지 메코강 근처에서 생활하였다. 일부 종족들은 현재 태국의 심장으로 흘러 방콕의 바다로 이어지는 차오 프라야강의 강줄기에서 거주하였고 일부 종족들은 메코강 상류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이 현재 라오스의 조상들이다.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진 라오스는 남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다.

라오스의 역사는 사실상 14세기 왕위를 계승할 피파 왕자가 왕비를 유혹하는 음란설 사건에 의해 시작되었다. 왕자의 음란설에 의해 왕자는 쫓겨나 아들 파 느곤과 함께 남쪽으로 여행하여 앙코라왕이 통치하는 크메르 궁전에서 거주하였다. 그곳에서 파 느곤은 소승불교를 공부하였고, 크메르 왕국의 총애를 받아 1350년경에 왕의 딸과 결혼하였다. 앙코라 왕은 파 느곤에게 군사를 주어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되찾게 하였다.

앙코르 왕이 쇠약해지고, 정치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파 느곤은 메코강의 상류지역에 걸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1353년 파 느곤의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면서 라오스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오스는 태국과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크메르의 북쪽에 위치하면서 스님들을 초청하여 정치의 자문과 고문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라오스는 소승불교의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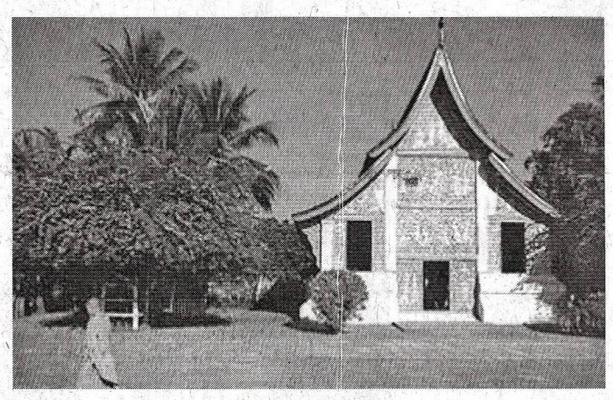
초창기에 라오스는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였다. 이러한 힘은 태국과 버어마, 베트남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문화적으로 주변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태국과 버어마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소승불교를 숭앙하였다. 소승불교는 라오스의 정치운명과 같이 했다.

라오스의 정치력의 약화로 소승불교는 윤리적 기초가 되었으나 시골과 주변지역으로 분산되었다. 라오왕은 정치적 권위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로서 왕좌에 남게 되어 승가와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비쉰왕은 (1501~1520) 루앙 프라방에서 정신적 지지자 역할을 하였으며, 예전에 베트남에 의해 피해를 당한 왕위를 회복하기 위해 왕궁에 불사를 많이 하였다. 이 때의 불사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모든 건축의 모델이 되었다. 루앙 프라방은 불교를 기념하는 가장 매혹적인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548년 비쉰왕의 손자 세타처라트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버어마의 침공으로 태국과 연맹관계를 맺고 루앙 프라방에서 태국의 수도와 가까운 비엔찬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후 태국과의 무역은 활발하게 되고 태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타처라트왕은 불교발전을 위해 건축을 세우는 등 많은 공헌을 하여 현재까지 '위대한 성전'라는 사원과 '프라 케오'라는 불상이 전해지고 있다. '프라 케오'불상은 1778년 태국의 침공에 의해 방콕으로 옮겨졌으며, 태국에서도 가장 신성한 불상으로 모셔지고 있다.

1778년 태국은 비엔찬의 남쪽지역과 루앙 프라방의 북쪽을 정복하여 프라 방과 프라 케오 불상을 1782년에 가져왔다. 태국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라오스는 1893년까지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다. 프랑스가 태국을 침공하여 프랑스에 항복하게 되었을 때 프랑스는 라오스의 국민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하였다. 현재에도 라오스 국민들은 태국지역에 살고 있으며 태국인들은 라오스지역을 빼앗긴 것에 분개하고 있으며 유럽지도에 라오스가 표기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사원

세계 2차 대전 동안 일본은 라오스를 지배하였다. 1946년 2차 대전후 프랑스가 지배하던 남부 아시아지역에 공산주의 호치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1954년 프랑스의 붕괴로 남부 아시아에서는 라오 자유당과 공산당이 발생하여 연맹을 맺었으나 연맹이 결렬된 후 라오스는 자유당과 공산당의 시민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 유엔의 보호를 받았으나 미국의 베트남 지배력이 약화되는 기간에 베트남 공산당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지배하게 되었다.

라오스를 지배한 공산당은 불교를 탄압하였다, 불교의 스님들은 시민혁명을 지지하였다. 공산당은 라오스를 완전히 장악한 후 불교탄압으로 스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경작하여 음식을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의 역할은 허락하였다.

프리케오 불상이 봉안된 에메랄드 사원

스님들은 시민들에게 학교 선생으로써 문자와 교양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불교를 가르치는데 있어 정부의 제한을 받았다.

공산당이 지배한 라오스는 라오스의 전통불교를 배재한 외국의 불교를 수용하여 가르치게 하였으며, 스님들은 전통적인 한방의사와 선생님으로서 생활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학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공산당에 의해 변화된 불교는 전통적인 라오스님들, 태국인과 라오스 불자들에게 비판되었다. 변화된 불교는 불교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기원과 마술의 부적을 팔기도 하였다. 소승불교의 순수성을 강조한 불교는 라오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여 왔다.

불교서적과 수행은 라오스불교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변화되었고, 공산당의 라오스 통치는 불교의 물질화를 초래하였다. 라오스의 모든 언론매체는 공산당에 의한 불교의 개혁을 감행하였다. 라오스인들은 공산당 통치에 의해 지배되고 불교는 공상당 정권에 통제를 받고 있다. 라오스 불교는 캄보디아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14세기와 같은 외교적 연맹을 유지하고 있다. 소승불교는 아직도 공산당정권의 통치하에 생활하고 있다. -지정 정사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laos-txt.htm

총지동의보감

주부 우울증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활과 사회속에서 남녀노소 모두 크고 작은 상실감이나 우울한 감정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점차 사회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점점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늘고 인터넷이나 홀로 자기생활에 빠져들게 되면서 현실과 인터넷속에서의 생활과 혼재하게 되면서 자살이나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과 달리 감정의 기복과 감정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조울증,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공황장애등 각종 신경정적인 병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30-40대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주부우울증은 주로 가정과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의 젊은 시기를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정에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점차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경우 상실감과 허탈감에 허무해지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증상은 주로 슬픔의 감정이 많아지고 생활에 의욕이 저하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불면증 또는 과도한수면, 피로감의 증가, 의욕상실, 이외에도 식욕감퇴 또는 식욕의 갑작스러운 증가, 성욕감퇴,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한의학적으로는 기울증(氣鬱症)이라하여 말 그대로 우리인체를 흐르게 되는 기운이 울체되면서 화(火)가 쌓여 오장육부를 제대로 운화하지 못해 각각의 기능들이 저하되고 특히 심장에 화가 쌓이므로 생기는 울화병(鬱火病)이다. 즉 마음의 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우울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게 발생률이 높으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가치상실,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감정, 분노 등을 풀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원인을 돌리게 되면서 발생하고 악화된다.

한방적인 치료로는 주로 울체된 화와 기운을 풀고 어혈과 담음 등의 노폐물을 풀기위한 온담탕, 소간해울탕. 귀비탕, 소요산 등의 처방을 활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발병원인이 되는 가족과 가정내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위한 노력을 통해서 원인을 혼자 해결하려기보다 가족이 함께 개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자녀와 특히 남편의 경우 그 동안 엄마와 아내가 얼마나 가족으로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히 배려하는 입장과 관심,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죽비소리 **사람이면 마땅히 말을 경계하라**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고 나와 남을 함께 해치는 일을 면해야 하며, 착한 말을 닦고 익혀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며 나와 남이 같이 이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아미타경 大阿彌陀經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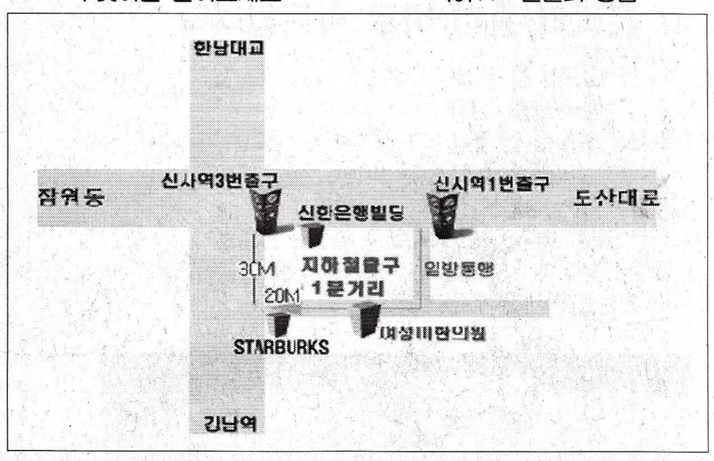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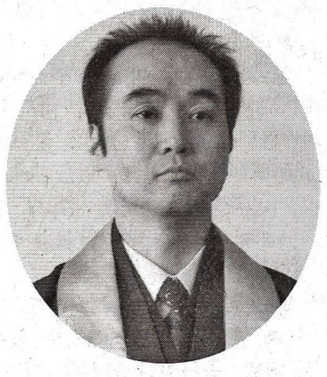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참 아름다운 배려

"삼독심 버릴 때 평안하고 행복해져"



법 등 〈밀인사 주교〉

〈밭이 좀 있다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요.

나에게 밭이 좀 있다면 청소년들이나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한 가정 또는 한 사람에게 다섯 평씩만 나누어 주어서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와서 무엇이든 심고 가꾸어서 거두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왜 다섯 평인가 하면 5복을 나누고 5복을 가꾸며 5욕의 마음의 때를 그 밭에다 내려놓는 의미이지요.

사람의 일체욕심을 오욕이라 하는데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의 다섯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5종의 모든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물, 색, 식, 수면, 명예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많으면 욕심이 생기고 번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저 다섯 평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평의 복전(福田)에 일상에서 쌓여가는 우리 마음의 때를 다 내려놓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탐욕의 때, 성냄의 때, 어리석음의 때를 복전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식물의 3대 비료로 전환 수용하고, 미움과 원망심의 때는 따스한 햇볕과 비가 되고 때로는 바람이 되어서 복전을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때묻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람은 서로서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깨달음에도 이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틈틈이 내 마음의 다섯 평 복전을 가꾸면서 우린 마음속을 싱그러운 생명에너지로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3독심)의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워버린 그 자리에 아름다운 큰 욕심 하나를 심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다섯 가지 감관의 문을 잘 단속하지 못하게 되면 오욕에 물이 들어 모습과 소리, 냄새와 맛 그리고 감촉에 현혹되어 마음은 어두운 무명에 덮이게 되어 마침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하시고(불교총전, P.365, 백유경) "마땅히 오근(五根 - 눈,귀,코,혀,몸)을 스스로 잘 다스려서 함부로 오욕에 빠지지 말라. 비유하자면 소치는 목동이 채찍을 들고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만약 오근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오욕은 끝이 없으므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관은 마치 사나운 말과 같아서, 재갈을 단단히 물려 제지하지 않으면 수레를 사납게 끌어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나운 말이 끼친 해(害)는 한 때에 그치지만 오관이 가져온 해는 후세에 길이 미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불교총전 P.364, 유교경)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성이나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지요. 국보 1호 남대문 방화사건은 탐심에 눈 먼 한 인간이 성냄을 일으켜 어리석은 짓을 자행한 것으로서, 인간의 3독심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실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대의 향기를 만들고〉

서원(誓願)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는 자신의 맹세와 각오 즉 실천의지가 있는 자기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원 속에는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불교를 믿고, 수행한다는 것은 탐진치 3독심 등 번뇌의 지배를 받는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온갖 장애를 잘 극복하고 참된 자기의 진실이 제대로 발휘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몸짓인 것이지요. 그런데 입으로 서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결여된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서원은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의 미덕을 가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상대의 변화만을 기다린다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자기 변화는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름길이며 최고의 지혜로운 일이지요.

결혼 후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지금까지 30년 동안이나 힘겹게 살아온 어떤 여성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는 자각과 바른 의지로써 시어머니에게 잘 하기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갈망하던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갈등의 원인을 시어머니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런 시어머니에게 못마땅해 하며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어둡고 힘든 관계 속에서 상대의 변화만을 고집한 것은 헤어날 수 없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속박이 되었지요. 좀 더 일찍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더라면 기나긴 세월을 서로 미워하지 않고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탓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탓이라기보다 자신의 분별심과 업력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별업력에 속는 것이지요.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공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하면 상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로써 자신이 먼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대의 좋은 모습을 이끌어 내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배려이며, 자신의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갈망하던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불교를 많이 아는 것이나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가르침 하나라도 바르게 실천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것이 자신의 삶속에서 피처럼 살아 흐르는 불교가 되고 바른 수행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로서의 성취와 행복을 바라는 기도보다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실천이 더해지는 불교는 성취와 행복의 "0순위"입니다. 실천이 그대의 향기를 만듭니다.

그대의 삶 속에 평화를 가득히... 옴 산띠!

강물은 바다로

부처님께서 제자 카사파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여래가 얻은 오래 사는 업을 말하겠으니 자세히 들어라. 어떤 업(業)이 보리(菩提)의 인(因)이 될 만한 것인지 지성으로 들어 그 이치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나도 그러한 업을 쌓아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그 이치를 여러 사람에게 말한다. 보살이 오래 살려거든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보살펴라. 크게 사랑하고(大慈), 크게 가엾이 여기고(大悲), 크게 기뻐하고(大喜), 크게 버리는(大捨), 평등한 마음을 내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일러주고 선한 법을 가르쳐라. 모든 중생을 오계와 십선(十善; 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밈말, 탐욕, 성냄, 삿된 소견을 십악(十惡)이라 하는데 십악을 짓지 않으면 곧 십선이다)들에 의해 살도록 할 것이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세계에 다니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라. 해탈하지 못한 이는 해탈케 하고 헤매는 이는 건져내며, 열반을 얻지 못한 이는 열반을 얻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는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살은 수명이 길고 지혜가 걸림이 없는 것이다."

카사파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하면 오래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자식처럼 보살펴 주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래 살아 계시면서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백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려 하십니까?"

"카사파,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와 같이 인간이나 천상이나 땅이나 공중에 있는 목숨의 강물은 모두 여래의 목숨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래의 목숨은 무한한 것이다. 온갖 존재중에서 허공이 가장 영원하듯 여래도 모든 중생가운데서 가장 수명이 길다."

"부처님, 여래의 수명이 그렇다면 일 겁 동안만이라도 사시면서 중생을 위한 깊은 진리를 비내리듯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사파, 너는 여래가 아주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비구 .비구니나 신통을 얻은 선인들도 오래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모든 법에 자재한 여래가 일 겁이나 백 겁을 더 못 살겠느냐.여래는 항상 머무는 법이고 바뀌지 않는 법이며, 여래의 몸은 화현한 몸이고 음식으로써 유지되는 몸이 아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것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반에 들려고 한다. 열반이란 여래의 법성이다. 여래는 영원한 법이고 바뀌지 않는 법이니, 너희들은 그런 이치를 알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그리고 정진한 뒤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널리 가르쳐야 한다."

〈涅槃經 長壽品〉

진리의 여울

신도의 계율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를 귀의시킨 후 장자의 아들 야사도 출가를 하였다. 야사의 부모는 집을 나간 외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던 끝에 사방에 사람들을 놓아 아들을 찾게 했다. 아버지 자신도 아들을 찾아 나섰다. 강변에 이르러 야사가 벗어 놓은 듯한 황금빛 신을 발견했다. 강 건너 수행자들이 사는 녹야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곧 강을 건넜다. 찾아간 곳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법을 하셨다. 야사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어 신도가 되기를 원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삼귀의와 오계를 차례대로 말씀하셨다.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가르침을 수행하는 승단에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삼귀의를 외게 한 다음 오계를 일러 주셨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마시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시오. 셋째, 삿된 음행을 범하지 마시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다섯째, 술 마시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야사의 아버지에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니, 야사의 아버지는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해서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서 맨 처음으로 삼귀의와 오계를 받은 신도가 되었다.

〈우바한 오계상경〉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쉽기쉬운 밀교상식<11>

중국밀교③

금강지 삼장의 제자 불공 스님

인도의 밀교를 중국화하다

불공(不空) 삼장

불공(不空) 삼장은 중국의 밀교를 대성한 위대한 밀교승이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수께끼에 싸여 있는데 순수한 중국인이 아닌 인도인의 피가 섞인 서역 사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서기 705년에 태어나 10세 때인 714년에 양친을 잃고 중국 감숙성의 무위(武威)에 들어옴으로써 중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13세에 장안에 들어와 15세인 719년에 출가하여 금강지 삼장의 제자가 되었다.

불공의 전기에 의하면 금강지 삼장은 처음에는 그를 중시하지 않았는데 꿈을 꾸다가 그가 큰 그릇이 될 것을 알고 법을 이을 제자로 잘 키웠다고 한다. 금강지가 입적한 후 불공은 해로로 남인도와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많은 밀교경전을 구하여 돌아왔다. 그는 또한 스리랑카에서 보현(普賢)아사리로부터 새로운 밀교를 배워 오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 불공은 《금강정일체여래진실섭대승현증대교왕경(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 3권을 한문으로 번역했다. 현재 한문으로 번역된 밀교경전의 절반 이상이 불공 삼장이 번역한 것이며 전부 110부 132권의 경전을 번역했다.

불공은 구마라집, 현장 스님과 더불어 중국의 3대 역경가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불공은 현종과 그 뒤를 이은 숙종(肅宗), 대종(代宗)의 국사(國師)로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당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로서 불공삼장은 장안의 대흥선사에서 단을 쌓고 밀교의 의례에 의하여 난이 평정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또한 문수보살의 성지인 오대산에 금각사를 재건하고 전국의 사원에 밀교화한 문수보살상을 모실 것을 권했는데 아쉽게도 그가 입적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은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불공 삼장에 의한 방대한 밀교 경전의 번역과 황실을 비롯한 상류층을 통한 민간에의 밀교보급 등은 밀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해진 계기가 되었다. 한 마디로 불공삼장은 선무외삼장과 금강지 삼장에 의하여 도입된 체계적인 중기 밀교를 중국화하여 일반 민중에게 까지 밀교를 보급한 중국밀교의 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

774년에 70세를 일기로 입적했으며 나라에서는 대변정광지불공삼장(大辨正廣智不空三藏)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결합한 혜과 아사리

양부만다라로서 밀교의 세계를 나타내다

불공의 뒤를 이은 혜과(惠果) 아사리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조합하여 체계화 했으며 양부 만다라를 교학적으로 조직화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선무외삼장이나 금강지 삼장, 혹은 불공삼장이 인도 계통의 승려였던 것과는 달리 순수한 중국인이었다. 혜과 아사리는 746년에 서안에서 태어났는데 속성은 마(馬)씨였다. 9세 때인 755년에 청룡사성불원(靑龍寺聖佛院)에서 불공 삼장 문하의 한 사람인 담정(曇貞)의 밑에 출가했다. 그리고 762년부터 직접 불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20세 때인 766년에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고 불공삼장으로부터 금강계의 대법과 제존의 유가법을 배웠다. 일설에는 양부의 대법을 배웠다고도 한다. 767년에는 선무외 삼장의 제자인 현초스님(신라인)으로부터 태장법을 배웠다. 원래 불공삼장의 부법제자는 혜랑(惠朗)이라는 장로였다. 그러나 혜랑은 불공이 입적하고 불과 4년 뒤에 입적하고 만다. 불공이 입적 후 차례로 사형들이 입적함에 따라 법맥의 계승자는 혜과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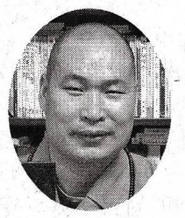
인도 밀교에서는 대일경 계통과 금강정경 계통의 밀교가 따로 전해져 왔지만 불공과 혜과를 거치면서 이 둘은 "양부의 대경"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받들어져 왔다. 불공이나 일행은 대일경 계통의 태장법과 금강정경의 유가법에 모두 통달했지만 어느 한 쪽이 주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된 면이 있지만 혜과는 이 둘을 동등하게 놓고서 '양부 대경' 혹은 '양부만다라'라는 이름으로 교리를 체계화 시켰다. 이 양부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것은 일본의 공해(空海)였다.

혜과(惠果) 아사리

혜과의 만년에 중국을 방문한 공해는 혜과로부터 양부대법을 전수받고 일본으로 돌아가 이를 토대로 진언종을 창종했다. 혜과 아사리는 밀교의 교학적 완성 이외에도 수시로 밀법 도량을 설치하여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을 위한 밀교의 비법을 행하여 이들에게 밀교를 전파했다. 776년에는 나라로 부터 국사의 칭호를 받았다. 혜과는 물욕이 없고 보시금이 들어오면 만다라를 제작하거나 사원을 수리하는데 모두 썼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재시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들은 법으로써 인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혜과 아사리를 뵙기만 하면 모두 감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세시에 대종, 덕종, 순종황제의 세 황제가 그에게 귀의했기 때문에 그를 삼조(三朝)의 국사라고도 불렀다. 805년 60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부처님 말씀 전하고파"

중국스님, 한국대학 첫 박사 학위-보정 스님



◇보정스님

▶ 논문 제목과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의천불교사상의 회통적 성격에 관한 연구'입니다. 의천스님은 한국천태학의 개조로서 중국에서도 유명하며 지금까지도 숭앙받고 있습니다. 스님은 세상을 '화엄'으로 보고 모든 갈등과 모순을 불교적으로 합일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을 골자로 하는 논문입니다.

▶ 학위 얻기까지의 난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97년에 한국에 와 원광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고 '99년 석사과정에 입학했지만 논문을 쓰기엔 역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총지종 화령 정사님을 비롯한 한국 친지들, 같은과 학우들이 많이 도와 줘서 지난달 원광 대학교 박사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 중국불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공인된 사찰이 13000여곳에 이릅니다. 지난 문화혁명때 많이 소실된 사찰을 30여년간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엔 스님이 약 30만명이고, 역시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40대 젊은 스님들이 많죠. 불교교육기관은 46개소 정도입니다. 이중 밀교 사원이 40 퍼센트 정도가 될 만큼 많습니다. 밀교 사원이지만 비로자나불을 비롯해 여러 불보살상도 모시고 있습니다.

▶ 총지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진언수행법이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언염송만 하는 게 아닌 현대적인 포교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해 교도를 많이 늘려야 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은...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후 귀국하여 중국불교협회 국제부에서 한중일 삼국불교, 동남아 불교교류와 관련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 박사학위를 잘 활용해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불교를 널리 소개 하고 싶습니다.

★보정 스님

1967년 감숙성 무산(武山) 출생. 고교 졸업 후 무산현 화엄암 묘달(妙達)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 오대산에서 구족계. 1997년 중국불학원 석사과정 수료. 현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부주임, 감숙성 난주 보은사 주지.

불교설화 <20>

조 알곡 세 알을 먹은 과보

- 우번대 이야기

우번대라는 이름은 '소가 몸을 바꾼 자리'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신라 때였다고 한다. 지리산에 머물던 문수보살은 보살이 법문할 때 종 치는 일을 맡아 보는 길상(吉祥)동자를 데리고 마을 들길을 따라 걸어갔다. 문수는 앞서고 길상은 뒤서서 가고 있었다. 길상이란 인도말로 '만주쉬리(Manjusri)의 뜻말이니, 길상동자란 곧 문수동자와 같은 이름이다.

그 때 마을 밭길에는 탐스럽게 익은 조밭이 있었다. 길상은 그 조 알곡이 어찌나 고운지 손에 놓고 바라보다 그만 세 알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길상은 아까운 그 알곡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곡을 자신의 입안에 털어 넣었다. 이를 지켜 보던 문수보살이 말했다.

"길상아, 너는 이제 소가 되어 세 해 동안 빚을 갚아야 하겠구나."

그 순간 길상동자는 누런 암소가 되어 말없이 밭둑에 앉아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

오염되지 않은 맑은 의식의 세계란 이같이 과보의 힘이 바로 나타나는가 보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번지듯이 말이다.

소가 된 길상은 밭 주인 김서방을 따라가 열심히 일했다. 그가 땀을 흘린 밭은 풍년이 되었고 주인은 세해만에 부자가 되었다. 또 이소가 떨어뜨린 소똥은 밤이 되면 환하게 빛이 났다. 그런 연유로 길상이 소가 되어 일하던 마을 이름을 지금도 방광리(放光里)라고 부르고 있다. 우번대는 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 이 방광리 어귀에서 올려다보아야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꼬박 세해를 지낸 날 밤,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 주인의 방문앞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주인장 , 내가 세 해 동안 일을 해 주었으니, 빚을 다 갚은 듯합니다. 이제 나도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문을 열어젖히고 내다보니, 지금까지 집에서 부리던 소가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를 따라 나섰다.

가을 산빛같은 누런 털 위로 맑은 달빛이 스며든 소는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소는 걷고 또 걸어 천은사와 상선암을 지나 우번대에 이르자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벌써 날이 새었는지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김서방은 사방으로 소를 찾았지만 보살의 손처럼 희디 흰 산 갈대 숲속에 작은 띠집 한 채만이 있을 뿐 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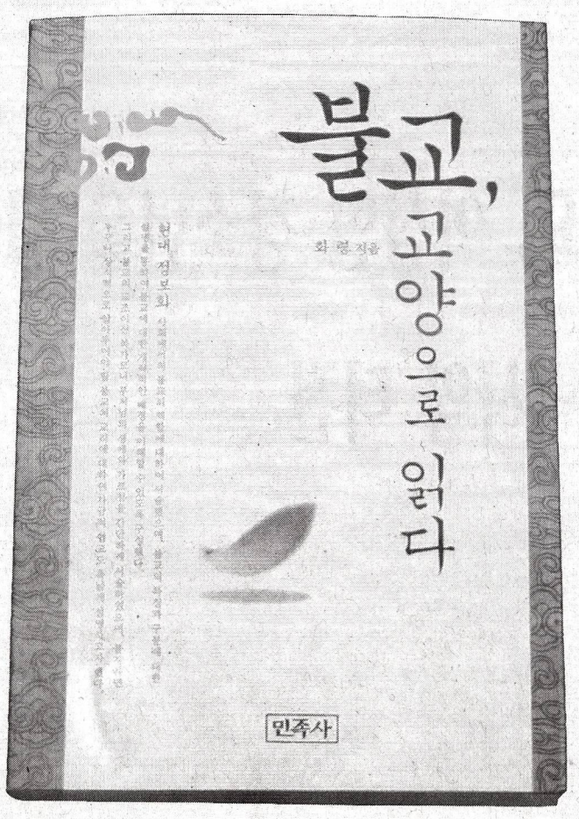
김서방은 마침 띠집 앞 바위 위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 물었다.

"어르신, 혹시 소 한마리를 못 보셨습니까?"

"그 소는 피곤해서 방에 누워서 잠자고 있을 것일세. 돌아가는 길에 소 허물을 보거든 그것이나 잘 묻어 주게나."

김서방이 방문을 열어보니 과연 노인의 말대로 한 동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 김서방이 땅에 엎드려 참회하고 다시 마당을 돌아보니 방금 있던 노인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집이랑 동자랑 다 함께 말이다. 김서방은 내려가던 길에 죽어 있는 소를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주었다.

많은 불교 설화가 그렇듯이 우번대 설화 또한 숱한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상징체계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설화가 노인, 동자, 마을, 조 알곡, 소, 일, 소똥, 방광, 문수, 길상, 세 해 같은 말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지를 밝게 읽어 내야 한다.



〈불교, 교양으로 읽다〉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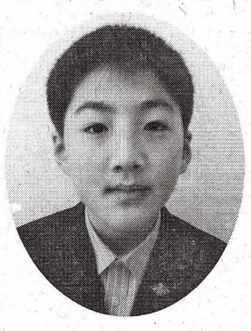
화령(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지음 / 민족사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간략히 서술하고 불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불교 교리에 대해 쉽고 폭넓게 설명했다.

총지문예

3·1절아



안성민
동해중 2-7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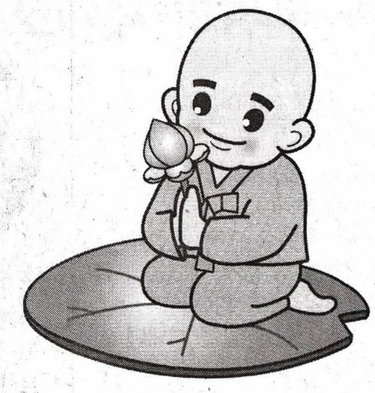
3·1절 아침엔
어린 새싹
이미 태양을 머금었다.

굳고 언 땅 속
춥고
어둡고
억울했었지.

발돋움하고
사지 뻗어
그 빛 향해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끄떡없다
눈비 내리고
바람 스쳐가도…….

3·1절 아침엔
알 수 없는 그 힘!
우리 조국에
꽃피운다.



우리들의 이야기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해나 착오가 생겼을 때
서로 따지고 나무라고 말다툼하기 보다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사과부터 먼저 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아파트나 할인점, 은행 등의 여닫이문을 드나들 때
바로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놓아버리기보다는
문을 붙잡은 채 기다려
엘리베이터나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섰을 때
내리는 사람을 밀치며 끼어 타기 보다는
다 내릴 때까지 비켜주며 기다렸다 타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나 말썽을 부릴 때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욕하고 때리기 보다는
잠시 동안 꼬옥 붙안고 타이르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산길이나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때
비좁은 길에서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치기 보다는
한 쪽으로 물러서서 먼저 지나가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곧 바로 퉁명스레 되받고 쏘아주기 보다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가 다시 걸려 와서 물어볼 때
귀찮게 한다고 짜증을 내며 끊어 버리기 보다는
상냥하게 설명해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부모자식간, 형제간, 고부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해 버리기 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미는 일이 생겼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당장 화풀이하기 보다는
큰 숨 세 번 쉬면서 화를 진정시키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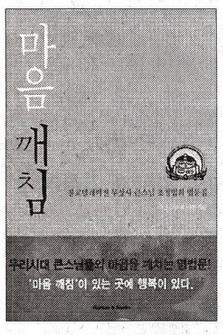
여유 있는 마음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면술사의 재능 같기도 하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어머니의 기도 같기도 하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자비 같기도 합니다.

-총지사 카페 / 지정 정사

이달의 추천도서

마음 깨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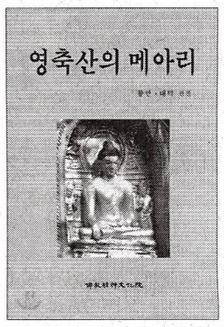
수산 지음/ 휴먼 앤 북스



이 책은 불교텔레비전의 '일요 초청법회'를 통해 들려주신 큰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을 엮은 것으로, 법문을 펼치신 팔십 여분의 스님 중 수산 큰스님, 천운대종사, 성타 큰스님, 월서 큰스님 등 1차적으로 스무 분의 법문을 엄선하였다. 큰스님들이 전하는 법문들은 자신들이 제방에서 직접 겪은 수행담을 함께 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얻어지는 치열한 구도정신은 우리들에게 죽비를 내리치듯 많은 깨침을 던져준다.

영축산의 메아리

황안 지음/ 불교 정신 문화원



마가다국(MAGADHA,摩竭陀國) /왕사성(RAJA-GRHA,王舍城) /트리베니 강변에서 / 왕사서에서 빔비사라왕을 만나다 /자연외도 발가바 선인 /알라라 칼라 /마와 웃드라카라마 풋다 /가야성에서의 독립수행 /해탈의 경지 / 부처님의 성도 /여래의 참뜻 /법계정관(法界正觀) /화엄세계의 나타남 /중도실상(中道實相) /여러 보살들의 찬송 /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 /너 자신을 찾아라 등 부처님의 생애와 경전 관련 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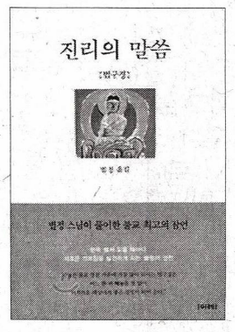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광덕 지음/ 불광 출판사

광덕 스님 법문집. 광덕 스님 열반 9주기를 기해 발행된 이 법여집은 70년대 중반부터, 99년 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주로 설하신 법문 중에서 미출간된 말씀들을 담고 있다. 가능한 일반불자들의 신행 사례담을 중심으로 한 법문들을 엄선하였으므로, 쉽고 재미나게 읽어가면서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마음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 진실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 출가, 성도, 열반에 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드신 진정한 의미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진리의 말씀-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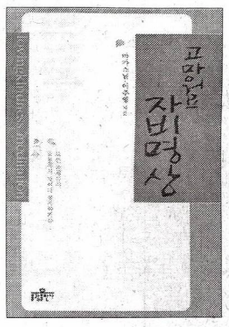
법정 지음/ 이레



법구경은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수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법문이다. 법정 스님이 풀이한 불교 최고의 잠언을 담았다. 모두 423편의 시집이며 그 주제에 따라 26장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한 편 한 편의 시는 일상에 파묻힌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불러 깨우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다시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고마워요 자비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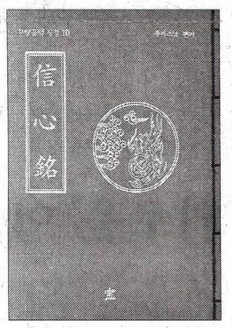
마가스님 이주영 지음 / 불광



자비명상의 지침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고마워요, 자비명상』.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명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이 책은 '자비심'을 키우게 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지침과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힘을 키우도록 인도한다. 총 3부로 구성했으며, 제1부는 자비명상을 알고 싶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제2부와 제3부는 자비명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비명상의 수행법과 진행법을 안내하고 있다. ☞ Tip! 『고마워요, 자비명상』의 제3부에는 부부, 가족, 직장인, 어린이, 청소년 등의 유형별로 자비명상 프로그램이 담고 있다. 즉, 자신의 상황에 맡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심명

무비 스님 지음/ 창 출판사



-'무량공덕 사경' 시리즈, 제10권 『신심명』. 중국 수나라 선종의 제3대 조사 승찬 선사가 저술한 '신심명(信心銘)'을 사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신심명'을 한글로도 담아내 이해를 도와준다. '신심명'은 모든 사람이 부처이나, 선과 악, 자신과 타인, 깨달은 자와 평범한 자를 분별하고 차별하여 본디 모습을 잊고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살고 있음은 일깨워주는 경전이다.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관 성 사 주교 :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밀 인 사 주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762-1412	벽 룡 사 주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889-0211	법 천 사 주교 :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시 법 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실 지 사 주교 :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2)983-1492	정 심 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지 인 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 지 사 주교 : 전수 선도원 정사 법 일 전수 자행정 ☎ (02)552-1080	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서울 · 경인교구 신정회

서울 · 경인교구 일동

기고 "나누고 비워서 지구를 잠시 여행하는 순례자 되길"

- 무위의 세계로 돌아가신 우리 절 노보살님께

엊그제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도 바람은 차갑고 매서운 겨울입니다. 마치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추위가 몇 차례 대지를 흔들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언 땅이 녹아 개울물 소리로 흘러 내려 새싹을 틔우고 쑥이며 달래, 냉이, 씀바귀는 부지런한 아낙들의 손놀림을 바쁘게 할 겁니다.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향긋한 내음에 취하여 빙그레 봄의 미각에 빠져듭니다.

마른 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움이 터서 새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히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어김없이 올봄도 순환하는 우주의 질서속에 또 다시 찾아 옵니다.

우리도 우주속에 작은 존재로 잠시 여행을 왔다가 어느 날 홀연히 머나먼 길을 갑니다. 마주보며 정들었던 가족과 이웃들의 준비없는 이별을 반복하며 가슴 아픈 상실감에 빠져버리지만 매번 또 준비를 못한 채 맞이하게 되었지요.

공양처서 20년간 봉사

불교는 49재를 통해 이세상과 저 세상을 건너는 다리를 놓아 주어서 떠나보낸 이의 마음도 위로하고 정리하여 다스려 주고 떠난이도 생전 지은 업장을 녹이고 달래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며 7.7재를 올리어 얽히었던 감정과 아쉬움을 조절하여 풀어서 참회하고 감사하게 해 주는 다리를 놓아 건너게 합니다.

지난 2월 7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자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의 7.7재 였습니다. 49일간의 기도로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아름답게 살다간 생애를 조금이라도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항상 무위와 무상에 머무른다고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그 분께는 결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원정대성사님과 총지종의 밀알이 되셨던 창종시기 정각사에 입교하셨습니다. 일심으로 정사님, 전수님께서 밀교 중흥과 중생제도를 위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정진기도와 서릿발 같은 계율로 몸을 던지시며 밀교의 생활화를 설파 한 결과, 각 사원마다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초창기 은혜로운 기적을 이루던 시기입니다. 열반에 드실 때까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나오셔서 계행과 계율을 철저히 지키시며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타인에게는 덕의를 베푸시며 그야말로 육행을 실천하시어서 몸소 본보기가 되시며 대중을 말없이 이끌어 가던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며 마음에 노여움이 없이 태연하시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말씀과 걸음걸이며 묵묵하게 일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늠름히 견뎌내시던 거인이셨습니다.

정각사 공양처에서 20여년간을 자원봉사 하시면서 그 분의 손끝에서 간맞추어 만들어진 맛있는 음식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대중의 공양으로 회향되었지요.

철따라 담그는 절간의 기본 살림(젓갈, 김장, 고추장, 동지팥죽, 직접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 장 담그시고)과 모든 승공양물도 손수 만드셔서 시시때때로 올리시고 그 뿐 아니라 큰 절 행사는 잦고 쉴 틈없이 일이 많고 바쁜 날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3년간 총무로 재직 시절에 그 분을 더욱 가까이서 뵙게 되었는데 공양처에 부탁드릴 일이 많아서 송구스런 맘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언제나 첫마디에 밝게 '오케이' 하시며 걱정을 한 방에 날려 버리시던 참으로 시원하고 호탕한 분이셨습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시고 편안하게 해 주시던 푸근하고 더 넓은 아량을 저의 부족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느질 솜씨 또한 좋으셔서 스승님 옷과 주위분들의 필요한 옷까지 자주 만들어 주시고, 여름이면 일일이 풀 먹이고 다리미질 하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공들여서 손질하시어 정사님 전수님 법의를 갖다 드리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모든 일에 노련하시고 정확해서 실수가 없으시고 서두르지도 재촉하지도 않으며 원만히 일처리를 잘 하시던 분인데, 작년 여름 어쩌다가 뜨거운 국물에 발을 데었는데 그 상처가 꽤 깊어서 오래 치료를 하셔야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그만 둘 때가 된 거지?"

당황하지도 찡그리지도 걱정하지도 않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그 상처가 신경이 쓰였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또 대답하셨지요.

"괜찮지 뭐, 곧 나아"

오늘도 공양처는 대중공양 시간에 맞춰 바쁘게 돌아가며 한바탕 소란합니다. 그 속에서 그 분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이 끝나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내색하지도 않으시고 한의원으로 향해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살며시 오시던 그 모습으로 금방 들어설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신 걸까요?...

365일 빠짐없이 절에

이제 어디에도 흔적 남기지 않고 오직 기억속에 남아 먼 길 떠나셨습니다. 병하나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일주일 입원하시고 깨끗하고 고운 평소의 모습으로 늘 염원하시던 무위와 무상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마음속에 삼독을 비워버리고 자유롭고 안락하게 안인을 얻어서 구지광겁으로 닦아도 성불하기 힘든 중생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생사와 열반에 모두 평등하시어 분별없이 안인 바라밀을 성취하셨습니다. 살아생전 베푸신 몸수고와 쌀보시와 옷보시와 재보시와 평화로운 마음의 무상보시로 날마다 쌓아올린 육행공덕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높이 천상을 넘어서 성불의 길에 드셨을 것입니다. 그 분은 기꺼이 떠나가셨지만 한 분의 살아 온 생애를 교훈으로 가슴깊이 간직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옷깃 여미고 한 마음 되어서 49일을 정성으로 동참하여 기도 올렸습니다.

보살님께서 살아오신 공덕의 결과로 억지로 맞추어도 되기 어려운 큰 불공을 49일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동지불공과 창교절 불공, 정각원 스승님 불공, 새해 정진 불공과 종조탄신불공 그리고 설 불공까지 큰 불공은 다 마무리하시고 열두부처님 영접을 받으시고 주교 정사님 좋은 법문과 합창단의 열반가로 구품연화대에 오르셨습니다.

훌륭하신 보살님을 모시던 자부는 합창단 총무로 봉사하셨고, 따님은 절에 꽃공양을 올리던 꽃꽂이 선생님으로, 손자는 할머니와 가족들의 기도로 몇해 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입학 하였습니다. 가정에 모든 걸 성취하시고 자손들에게 얼을 남기고 가신 그 분의 보시 정신과 봉사와 희생은 사랑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살다 가신 생애를 위해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봄이 옵니다. 그 분의 숨결처럼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그 분이 늘 지니신 희망의 마음으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부드럽고 향기롭기를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린 날마다 담고 모아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누고 비워서 이 지구를 잠시 여행하는 순례자가 되어 합장하고 고요히 자신의 자리를 바라봅시다. 피고지고 나고 죽고 오고 감에 걸림없이 저녁의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아침이면 동녘에서 빛나는 해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정각사 연화심

세상사는 이야기

'외로움' 이라는 고(苦)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 온 것 같다.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은 때때로 밀물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꽁꽁 얼게 만들고 때로는 썰물처럼 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내 존재감 마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내가 마치 바다 속에 깊이 가라 앉아 다시는 영영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도 있다.

오늘도 난 공연스레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아니, 오늘은 외로움이 조용히 찾아왔다. 갑자기 왜 배가 고프기 시작할까? 마음의 허기짐을 먹는 것으로라도 채우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나 할까? 냉장고 문을 열고 며칠 전에 산 음식들을 꺼내 양껏 먹어보았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해결 되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탈출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외로움을 즐겨 보자.

때때로 찾아 오는 외로움은 우리 인생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 보는 기회도 되고 현재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 할 시간이 주어 지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나에게만 찾아 오는 것은 아니다. 내 주위에는 외로움을 견디기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무슨 해결사나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 다시 생각 해 봐도 주제넘는 일인 것 같다.

그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강변도로를 지날 때 느꼈던 외로움 곱게 물든 노을을 보며 나에게 또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것은 너무 아름다워 찾아 오는 외로움이었다.

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체질인 것 같다. 친구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돌아 서서 집에 올 때의 그 텅 빈 것 같은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빠져 나간 내 빈 자리, 이 공허함. 며칠이 지나야 다시 채워지겠지… 채워 질 때까지 다시 외로워 하며 지내겠지.

잎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 노구를 이끌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 멋지고 화려한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 올 때, 여행지에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겨울인데 아직도 새파란 풀잎을 보았을 때, 열심히 불공을 하고 늦은 시간에 혼자 절을 나설 때, 뿌듯하면서도 쓸쓸함을 느낀다.

난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럿이 한 길을 바라보며 상대방과 내가 서로에게 맞추어 가며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며칠 전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그와 같이 되고 싶었던 분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항상 우리들에게 용기와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동을 받으며 그 분을 알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도 초대되어 너무 좋았다. 그분은 집에서도 역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이분은 자손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시다. 이 분의 다른 면을 오늘 발견했다. 작은 일에 감동 받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나와 똑같이 외로움을 타고 계셨다. 나와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니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역시 인간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 오는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다. -박묘정

생활상식

◀ 손잡이는 치약으로 닦는다

접촉 횟수가 많고 쉽게 더러워지는 문의 손잡이. 그래도 커버를 씌우거나 늘 닦으면 반짝거린다. 더러워진 손잡이는 치약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닦아주면 깨끗해진다. 꽉 짠 물걸레를 마무리해 주면 더욱 좋다. 이 때 치약이 열쇠구멍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구멍으로 들어간 치약이 말라서 굳어지면 열쇠의 회전이 나빠지므로 미리 구멍을 막고 닦으면 간단하다.

◀ 달걀은 뾰족한 쪽을 아래로 보관

달걀을 놓았을 때 양 끝의 크게 둥근 쪽에는 호흡하는 공간이 있어 달걀 스스로 신선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달걀은 크게 둥근 쪽을 공기가 잘 통하는 위를 향하게 하고, 작게 둥근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두어야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존 할 수 있다.

◀ 가방이 더러워 졌을 경우

가방의 더러운 때는 중성 세제로 닦는다. 먼저 옷감으로 만들어진 가방은 비눗물로 닦고, 합성 피혁으로 만든 가방은 중성세제를 묽게 탄 물로 적셔서 짠 걸레로 닦고 잘 말린다. 또한 고무 지우개로 오염 부위를 지워 본다.

◀ 커피를 마시면 피부가 거칠어진다?

커피를 마시면 피부가 거칠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오래 된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원두는 보관 중에 산화물이 생성되는데 이 산화물이 피부를 거칠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커피에는 혈액을 좋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므로 좋은 원두를 골라 산화되기 전에 사용한다면 피부가 거칠어질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미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주택 내의 개미를 없애는 방법

부엌이나 방에 아주 작은 개미가 줄줄이 기어 다니는 수가 있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으면 위생상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감도 일으킬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개미가 기어 다니는 통로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며칠 후에 없어진다.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만 보 사	백 월 사	법 황 사	혜 정 사	홍 국 사
주교 : 정사 지 성	주교 : 정사 법 우	주교 : 정사 승 원	주교 : 정사 서 령	주교 : 전수 밀공정
전수 승효제	전수 인지심	전수 묘원화	전 수 혜원정	
☎ (042)255-7919	☎ (042)527-5470	☎ (062)676-0744	☎ (043)256-3813	☎ (063)224-4358

충청 · 전라교구 일동

〈종보 100호 기념 특집〉

한국불교의 전래와 밀교의 역사①

1995년 창간호를 발행한 총지종보가 어느덧 금월호에 지령 100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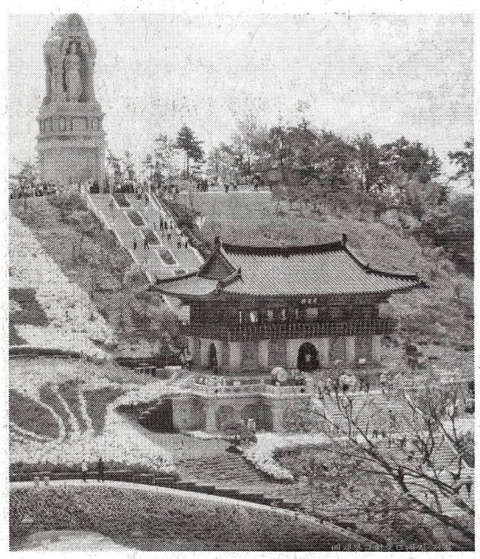
총지종보는 그동안 문서포교를 통해 종단을 홍보하고 한국밀교 현대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100호 발간을 기념해 '한국불교의 전래와 밀교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 밀교 종단의 현황과 나아갈 길'과 관련한 특집 기고글을 수 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1. 불교의 전래와 밀교의 역사

불교가 우리 나라에 제일 처음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기원후372년)으로 중국 전진(前秦)의 왕 부견이 승려 순도와 함께 불상과 경전들을 고구려에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로 전래되었다.

백제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침류왕 1년(384년)에 중국 동진(東晋)의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마라난타는 인도 간다라 출신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로 건너와서 불교를 전파하였다. 굴비로 유명한 전남 영광의 법성포가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로 알려져 있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전경. 서기 384년(백제 침류왕 1년)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불경 등을 가지고 중국 동진에서 건너와 백제 땅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다. 지금의 전남 영광 법성포가 그곳이다.〈자료출처 : 전남 영광군 자료사진〉

백제불교의 전래에 대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등에 기록되어 있다. 『해동고승전』에 의하면, '석 마라난타는 인도 출신의 승려이다. 그는 신통한 힘을 지녀 온갖 일을 해내는데,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었다. 스님은 불교를 전파하는 데 뜻을 두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교화하였다.' 고 하였다. 인도승 마라난타의 불교전래로 인하여 고유한 백제불교문화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신라 불교의 전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삼국사기』에 근거한 내용이 가장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법흥왕 15년(528년)조(條)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신라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것에서부터 공인되기 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눌지왕 때 사문 묵호자(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신라의 일선군(一善郡)으로 오면서부터라고 한다. 일선군은 현재의 경북 선산군이다. 묵호자가 신라 일선군에 왔을 때, '모례'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 굴실(窟室)을 만들어 그를 살게 했다.

그때 중국 양나라 왕이 사신을 통해 신라왕에게 옷과 물건, 향을 보냈다. 그 이름과 사용법에 대해 몰라 묻고 다니던 중에 묵호자가 그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태우면 꽃다운 향기가 높이 휘날리며 정성으로 신성(神聖)에게 통할 수가 있다.…중략…만약 향을 태워 발원한다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 왕녀가 병이 들어 위급한 상태이므로 그는 향을 태워 서원케 하였더니 쾌유되었다. 왕은 대단히 기뻐서 예물을 하사하였다. 묵호자는 받은 물건들을 모례에게 주고 떠났는데 그 이후로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불교가 신라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것은 법흥왕 때에 이르러서이다. 이차돈의 순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군신들은 불교를 반대하였다. 이에 불교의 선교(宣敎)를 위해 이차돈은 자신의 목이 베이는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차돈은 "불법이 일어난다면 신은 죽어도 애석함이 없습니다."하며 순교(殉敎)를 자처했다.

군신들은 "오늘날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이상한 모습의 의복을 입고 있으며 그들의 말은 괴상하여 보통의 도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그냥 방치해두면 아마도 후회가 따를 것입니다. 신들은 어떤 중벌을 받는다 해도 왕의 어명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이차돈은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영험이 있다면 내각 죽은 뒤에 반드시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차돈의 목을 치자 흘러내린 피는 흰색 젖과 같이 희고, 목은 날아가 금강산정에 떨어지고 하늘은 빛을 잃고 땅은 진동하였다.

대중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두 번 다시 불교를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반월성(半月城)에서 날아간 이차돈의 목은 멀리 금강산정에 떨어졌는데 그곳에 절을 지어 '백율사'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신라불교는 국가적인 승인하에 신봉되었다.

삼국시대에 처음 전래되었던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밀교에 가깝다는 점이다. 처음 불교가 전해진 내용들이 모두 신이(神異)와 기복(祈福)이란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밀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밀교 가운데 재난을 없애고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잡밀(雜密)의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불교가 모두 밀교였다는 것은 아니다. 밀교 뿐만 아니라 대·소승의 불교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화엄, 유식 뿐만 아니라, 정토, 미륵신앙, 밀교 등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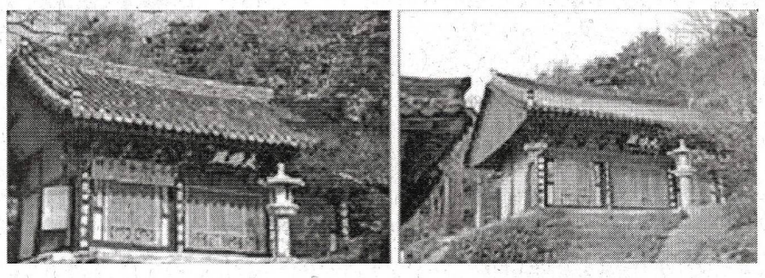
그 당시 밀교의 형태는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단편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의 밀교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복잡한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교학적인 이론의 불교라기 보다 현세이익(現世利益)과 양재초복적(禳災招福的)인 형태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삼밀수행이 체계화되거나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순밀(純密)의 형태라기 보다 재난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는 잡밀적 요소(雜密的 要素)가 농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이(神異) 신통(神通)의 내용은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동고승전』에 기록된 백제불교 전래에 있어서 '석 마라난타가 신통한 힘을 지녀 온갖 일을 해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신통한 힘을 지녔다는 내용에서 밀교의 각종 비법(秘法)을 짐작케 한다. 또한 신라불교의 전래자인 묵호자가 신라 일선군에 왔을 때, '모례'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 굴실(窟室)을 만들어 그를 살게 했다는 점에서 밀교 수행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굴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백제불교 전래의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5월 13일 재현된 행사 사진이다. 〈자료출처 : 전남 영광군 자료사진〉



△백율사 : 경북 경주시 동천동 406번지 소재. 이차돈의 목이 멀리 소금강산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불교가 신라에서 공인되었다. 이차돈의 명복을 빌고자 절을 세웠으니 지금의 백율사다. 처음에는 자추사라 하였다. 대웅전은 선조 때에 중창된 것이다.

굴실은 '신라인과는 전혀 다른 이국의 사람을 숨겨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밀의궤, 비전(秘傳)으로 상징되는 밀교의 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가 수행하는 것은 아무도 보아서는 안되는 비밀불교의 수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이(神異)의 내용은 『삼국유사』에도 무수히 나온다. 뒤에 살펴볼 신라 밀교승의 행적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신이(新異) 뿐만 아니라 초전의 불교에 나타난 특징이 복을 구하고 재난을 없애는 기복신앙의 형태다. 『해동고승전』의 「순도전」(順道傳)에 보면, 인과(因果)에 대한 대목이 나온다. 인과를 설한 배경은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를 설하므로써, 현세에서 복을 누리려면 좋은 인을 지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있다. 인과설이 현세적인 복락을 구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 바탕은 현세이익(現世利益)의 공덕과 양재초복(禳災招福)를 기원하는 밀교적 성격을 지닌 불교였던 것이다.

백제의 불교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초복적인 신앙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백제 17대 아신왕(阿莘王)은 원년에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하여 복을 구하라"는 교시가 있었던 바, 불교는 그야말로 복을 구하는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불교가 백제에 전래될 당시 초복(招福)적인 불교로서 다분히 밀교의 형태였음을 보여 준다. '불법의 숭신'이 불교 본래의 신앙적 형태라고 한다면, '복을 구하라'는 대목은 기복신앙으로서 현세이익과 초복의 밀교 신앙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라난타의 전기(傳記)에서도 백제불교의 밀교적 요소들을 엿볼 수 있는데, 『해동고승전』에 "그는 도승(道僧)으로서 신통이변(神通異變)의 기행(奇行)으로 무언무설(無言無說)의 교화를 하였다"는 기록에서 그의 교화가 말로 설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교화방편이었음을 보여준다.

말로써 설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교설을 의미하지만, 무언무설(無言無說)의 신통이변은 밀교만이 가지는 심비성(深秘性)과 상징성(象徵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신통이변(神通異變)을 보였다는 것은 밀교의 주술적인 의궤를 담당하는 궤범사(軌範師)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밀교(密敎)에서 얻은 그의 법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동진(東晋:317~420)시대에는 이미 대승경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밀교경전들이 번역 유포되었기 때문에, 마라난타가 전해준 불교는 백제사람들의 고유문화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신이(神異)의 법력을 구사하여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비는 초기밀교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통적인 밀교 전래의 역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의 불교가 밀교적인 색채를 띄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될 당시에 이미 밀교적 요소와 신앙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밀교의 역사는 바로 삼국시대의 불교 초전(初傳)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수 인 사 주교 : 정사 지 공 전수 지회심 ☎ (054)247-7613	제 석 사 주교 : 전수 법상인 ☎ (053)743-9812	건 화 사 기로스승 자선화 ☎ (054)761-2466	개 천 사 주교 : 정사 경 원 전수 정법수 ☎ (053)425-7910	국 광 사 주교 : 정사 우 승 전수 묘섭계 ☎ (054)772-8776
단 음 사 주교 :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333-0526	선 립 사 주교 :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수 계 사 기로스승 : 안주화 ☎ (054)745-5207	승 천 사 기로스승 원 봉 ☎ (054)746-7434	진언 공덕 가득하시길! 대구 · 경북교구 신정회

대구 · 경북교구 일동

맑고 밝은 법문 전하는 진리의 메아리

지혜에 눈뜨고 자비에 가슴 열리게

총지 FOCUS /총지종보 100호 발행

총지종보 발행 100호를 맞이하여 총지종보의 발자취를 찾아가 본다.

총지종보는 1995년 10월 16일 불교계와 종도들의 숙원과 염원으로 창간되었다. 월간으로 발행한 총지종보는 종단의 애환과 기쁨 등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불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로수를 제공하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발원과 지원으로 이제 총지종보는 100호를 발행하며 불교계 주요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창간기념 축하 케익 절단식

(총지종보 창간호 1면 기사내용)

1995년 10월 16일

종단의 숙원이었던 '총지종보'가 관심과 기대속에 드디어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1995년 10월 16일 오늘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어딛게 되는 총지종보는 앞으로 즉신성불의 숭고한 이념을 널리 알리고 밀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사시로 하여 부처님 법을 모시고 실천하도록 이끌며 모든 독자들이 지혜에 눈뜨고 자비에 가슴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종단내의 비정기적인 간행물들이 있었지만 시대에 더욱 적극적인 교화를 위하여 이번에 정식 신문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 종보발행은 창종당시부터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간 내적으로는 전당건설 및 포교사업, 외적으로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설립의 참여등으로 인하여 발간이 늦어졌다

종보에는 종단내의 소식은 물론 불교계의 주요한 소식들이 실리며 또한 경전말씀과 대덕스승님들의 법어, 신행수기, 교양강좌 등 이밖에도 불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리게 될 것이다.

1면은 종단내의 주요행사 및 종령예하 법어가 게재되며, 2면은 사설과 종단관련 불교계 주요행사를 다룰 계획이다. 3면은 설법난으로 본종의 스승님들의 교화경험담 및 교도들의 신행담이 실려진다. 4면과 5면은 불교교리 강좌난으로 불교의 기초 및 심도있는 논문이 게재된다. 6면은 경전상식과 경전말씀을 풀이하는 난이 실리며 생활의 지혜와 불자로서 꼭 알아야할 일반상식들을 다룬다. 7면은 불자참여란으로 신정회의 활동 및 불자탐방등의 난이 마련된다. 8면은 화보란으로 밀교의 세계를 소개하며, 사진으로 보는 불교문화, 주요행사내용 등이 실린다.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보의 특성상 한자도 병행하여 누구나 읽기 쉽도록 배려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읽기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신문이 되도록 시각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겠다.

종보를 통하여 진리의 메아리가 울려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대한다.

"비구들이여….
이제 길을 떠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는 곳으로….
세상을 가엾이 여기고...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한 길을 둘이서 짝하지 말고 무소의 외 뿔처럼 혼자 가라,
만나는 사람마다 원만 무결하고 성스로운 불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며,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이치에 맞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설하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순일 무잡하고 청정한 행동을 실지로 보여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을 것이며, 법을 듣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니 만약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비구들아, 살거라 오직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전도선언 중에서

총지종 홈페이지 온라인

총지사에서 열린 창간호 기념법회

창간기념 법회가 봉행된 총지사

총지종보 98호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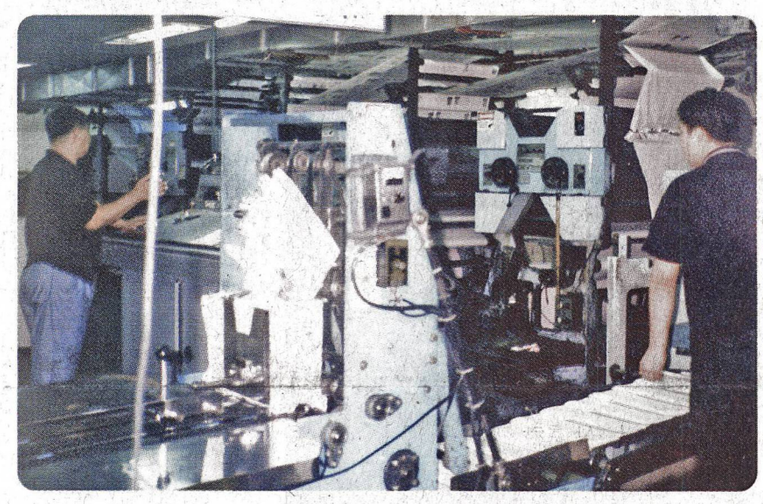
창간호 창간법어

-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전하는 진리의 場

법신물이 설하시는 비밀하고 오묘한 세계를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어찌 감히 읊조리겠는가마는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그나마 그 하찮은 말마디에 의지하여 진리를 더듬어 나가니 말이란 없어서는 또 아니되는 것이라.

이제 "총지종보"가 발간되어 법을 전하고 아름다운 메아리를 전하겠나니 더없는 기쁨이로되 걱정이 앞서도다. 세상의 저 거짓으로 가득한 먹물의 잔치에 물이라도 들면 어찌할거니, 부디 우리 "총지종보"는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만 전할지이다.

그리하여 갈애에 허덕이는 중생에게는 시원한 감로가 되고 미망에 헤메이는 중생에게는 빛이 되거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종소리가 되고 웃음을 꽃피우는 연화가 되거라



광세당 윤전기 가동 모습

창간호 기념 축하사절단

창간 축하 리셉션

총지종보의 발자취

1995년 10월 16일 : 총지종보 창간(8면)
2004년 9월 1일 : 12면으로 증면
2006년 11월 15일 : 홈페이지 온라인화
2005년 12월 20일 : 총지종보 편집위원회 구성
2007년 12월 27일 : 전국 사원 총지종보 통신원 발대식

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해요~

▲종보통신원 발대식

축하! 축하 총지종보100호를 축하합니다. 종조탄신일101주년 총지종보100호 의미있는 한해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도 새술은 새포대에란 말도 다 맞는것 같습니다. 종조님이 펴신 육바라밀 실천의 깊은 수행과 시대에 부응하는 날로 날로 젊어지는 총지종보가 되었음 합니다. 운영자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합니다.

- 멋쟁이 맘

그동안 수고해주신 편집위원님들 덕분에 종보 100호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 양유경

창간호 부터 100호 발행까지 관계하신 모든 스승님들과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편집위원으로 총지종보와 인연을 맺은

▲종보통신원 발대식 축하 모임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총지종보 발전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된것에 가슴 가득 뿌듯함을 느낍니다.

총지종보는 종단과 함께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종단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총지종보 100호 기념 자축의 박수를 힘껏 보냅시다.

- 박묘정

어머니 돌아가시는 길에 선도원 스승님을 비롯 함께 오셨던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겨울에... 그것도 서울에서 속초까지, 두 차례나 오가며 총지인의 사랑을 흡족히 베풀어 주셨던 선도원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유에 총지종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온전한 적을 둔 곳 없는 떠돌이 방랑 불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한길로 밀어오신 신앙의 위력,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신앙 본질의 더할나위 없는 위력, 그것이 무엇인지 ~ 알 수 없으나 나를 총지사에 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부터 총지종보를 접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 @@@... 아버지와 함께 당장 달려 가고 싶었던 총지사였지만 아버지 건강과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지종보에는 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제사 아버지께서 총지사 내력을 아시는만큼 몇날 몇일 ~ 해가뜨면 잠자리 드실때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함께 하시면 계속 하실겁니다. 아버지께서 못내 아쉬워 하시는 것은 진각종과 총지종이 갈라질때 그때 절에서 어머니께 스승님 하라고 권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거절했던것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큰 후회로 남는다는 겁니다.

▲종보편집팀 가판 회의

아버지께서 큰손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교리 공부 열심히해서 꼭 스승님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인연이란 필연인것을 ...매번 총지사 절에 가지 않아도 소식이 기다려지는 종보...앞으로 총지종보의 무궁한 발전으로 해외 총지인들에게도 전해주실것을 믿으며 총지종보 통신원 모든분들의 알차고 빈틈 없는 소식이 무궁무진 할것을 빌어봅니다.

지금도 동탄 신도시까지 날아오는 종보에는 많은 소식과 기쁨을 전합니다. 총지종보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총지종의 무궁한 발전과 종보 통신원들의 정확하고 알찬 정보와 안녕을 빌면서 새해 복 많이 지음시다.

- 동탄에서 김경운

총지종보 발행 100호를 축하드립니다.

100호를 축하드립니다. 매달 발행되는 총지종보를 보고 종단의 소식을 알 수 있고, 다른 사원의 신행체험을 읽으면서 수행에 많은 용기가 되어 즐겨봅니다. 개인적으로 불교설화가 재미있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와 발행에 앞서 정성과 열의가 느껴지는 총지종보입니다. 계속되는 발행을 기원합니다.

- 준영맘

우리 총지종보가 불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은 채 이 세상에 첫선을 보인지 어언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처님의 고귀하신 말씀과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였답니다. 깊은 지식도 없었고 특별한 경험도 없었던 저로써는 막막하기만 했었고 정말 편집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다면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 하게 되었답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많았답니다. 종보에 게재할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 또한 결정된 기사 내용이 진정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등등 온갖 번뇌가 뇌리를 스치면서 말입니다. 특히 사찰 탐방을 다녀와서 글을 쓰면서 더욱 더 그랬답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들을 순례하면서 호국불교로써 자부해온 우리 총지종의 존재 가치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도 무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둠속을 밝히는 조그만 등불처럼 먼 항해로 지친 배를 항구로 안내해주는 부두의 등대처럼 희망의 불빛으로 온누리를 밝히는데 우리 종보가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배달하는 한편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 차가운 겨울의 모닥불처럼 만인의 언손을 따스하게 해줄것이라 기대 해봅니다.

앞으로 총지종보 1000회를 기약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 최해선

▲총지사 공덕비 앞에서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었으면,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속마음 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제게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씹으면 온 입안으로 퍼지는 과일 향기처럼 목소리만 들어도 그날 하루가 행복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 때에도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와 낙심들로 괴롭고 외로울 때에도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혜로운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도반입니다.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 드리며 김은숙 함장

"처음 언니보살님의 손에 이끌려 편집실 문에 들어섰을 때 그땐 정말 어색하고 생경스러웠다. 법장원 보정님께서 새로 오신 보살님은 불교설화를 맡아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실 때만해도 정말 아득한 기분이 들었었다. 그런데 벌써 20회라니....

▲종보 편집팀, 통신원 종조전 관람

여러 경로를 통해 설화에 대한 글에 관심을 갖게되고 어느 달엔 읽다보면 10편 넘게 각기 다른 내용을 접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미쳐 깨닫지 못한, 내딛지 못한 자성불에 한발자국 다가서는 느낌도 받고 한사람의 생(生)이 윤회의 틀 안에서 일목요연한 그림으로 휘히 그려지기도 한다. 불교설화는 입과 입으로 전해 듣는 법문이라고도 한다. 살아 숨쉬는 경전이라고도 말한다. 종지종보에 발을 들여 놓고 적으나마 역할이 주어지고 불심에 한걸음 더 다가설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전한다.

-최영해

▲국광사 앞에서

2년 전 총지사 편집팀을 구성해 한 달에 두 번씩 편집회의를 하면서 종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작년엔 통신원 발대식을 거행하여 전국의 소식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위의 친지 여러분들에게 총지종보와 위드다르마의 구독을 권하여 주십시오. 통신원분들과 인사를 겸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 뵙고 발전적인 종보제작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인성

지면안내 금월호 '신행체험'은 2면, '세상 사는 이야기'는 8면에 실습니다.

총지종보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정각사
주교 : 정사 법 공
전수 공덕성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1)552-7901

덕화사
주교 : 정사 대 원
전수 정인화
☎ (051)332-8903

관음사
주교 :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단향사
주교 : 전수 행원심
☎ (055)644-5375

밀행사
주교 :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기로스승 : 혜 암
☎ (051)468-7164

성화사
주교 : 정사 지 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실보사
주교 :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2)244-7760

운천사
주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55)223-2021

일상사
기로스승 : 수행월
☎ (055)352-8132

자석사
주교 : 전수 혜안정
☎ (051)752-1892

화음사
주교 :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삼밀사
주교 : 정사 원 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부산·경남교구 일동

진언행자 가족을 찾아서 | 총지사 김은숙 교도

"부모님 섬김이 복(福)공장이랍니다"

새해가 되면 총지종 각 사원에서는 한 해의 안녕과 수행의 증진을 위한 가정불공에 들어 간다. 지난달 24일 한강변 김회장 댁. 가정불공이 있는 날이다. 진수성찬과 케익, 촛불, 시낭송 그리고 오케스트라 DVD 공연까지. 참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만큼 수행 도반들을 배려하는 것일 게다. 김회장이 그야말로 인기가 많아서 인지 불공 동참자가 20여명도 넘어 차가 여러 대가 갔다. 작년 친모님 상을 당했을 때도 교도들이 손발을 걷고 부조하고, 49재 때도 스승님들과 대중들이 많이 모였다.

물론 그만큼 덕을 많이 심은 것일 게다. 그래서 법명이 만덕장(萬德藏)인가. 굳이 불교의 인과법을 놓고 말하지 않아도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이치 아닌가. 그런 면에서 김 회장은 복의 인연을 많이 심었을 것이다. 재물복도 많아 작고한 각자님이 열 곳이 넘는 회사를 거느리는 그룹을 경영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복보다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곳, 마음공부하고 실천하는 생활불교인 총지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김은숙(69, 만덕장(萬德藏), 총지종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장, 총지사 회장)보살은 매사 긍정적이다. 마음 한 번 돌릴 줄 안다는 말이리라. 그건 불교에서 불교가 추구하는 '지혜롭게' 산다는 말일 게고.

김회장은 큰 일이라도 벌어지면 으레 "내게 좋을라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네" 한다. 그게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복잡하고 골치아픈 일이건 간에. 이렇게 대긍정(大肯定)하는 마음은 아마도 김회장의 정진수행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의 가족사에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효와 예를 중시하는 유교 5현(五賢) 가문에서 자란 영향인지 막내며느리인 김회장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당시 각자님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를 경영하던 때라서 안팎으로 손님도 끊이지 않았다. 성북동 산 윗 집과 시장을 오르 내리며 어떤 때에는 각자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럴수록 시어머님 봉양과 손님 접대에 최선을 다했다.

"행복을 만드는 총지종"

"지치고 힘들 때마다 복(福) 공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일 말입니다. 종조님께서도 효순(孝順)은 심덕(心德)의 대원(大元)이고 백행의 근본, 보리행의 으뜸이 된다고 수행에 앞서 늘 강조 하셨지 않았습니까?"

효심이 지극해서였는지 시어머니도 그랬고 친정 어머니도 김회장 집에서 돌아 갔다.

김회장을 닮아 세 아들과 딸 4남매도 모두 어머님 말에 거역하는 말이 없었고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을 정도로 효성스럽다고 한다. 남편의 타계 후 미국 시카고 대에서 수학한 큰 아들이 가업을 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순조롭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한다. 게다가 자손들도 창성해서 손자 손녀들까지 하면 스무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됐다. 둘째 며느리는 정각사를 열심히 다니며 틈나는 대로 시어머니께 진언수행에 관한 말씀을 여쭙는다고 한다.

김회장은 어릴적 사찰로 소풍이라도 가게 되면 그저 뛰어 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법당에 들어가고픈 마음으로 가득했다 한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인연된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발원하며 여러 산사를 찾아 다녔다.

20여년 전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 아들 서울대 보내려는 소박한 마음에 정각사를 찾았다. 정각사에서 49일을 정해 불공을 했는데 한 번도 불공시간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오래된 보살들과 똑같은 정진을 했다. 그렇게 불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좋은 일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심으로 충만했다고 한다. 막내 아들은 서울대에 가지 못했다. 김회장은 그때 부처님도 무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려 부처님께서 먼 장래를 보고 밀어 주신 것이라고 여겼다. 아들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불공을 회향하고 한 가지 더 증득한 것이 있었다. 불공 내내 머리를 맴돌았던 알 수 없고 미묘한 이 마음바탕에 대한 의문을 화두처럼 참구하게 된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순간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저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할 삶의 과제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지라도 자기 자신답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늘 잊지 말고요"

김회장이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서누이인 정각사 조현필 보살에게 총지종의 수승한 수행과 밀법을 전해 독실한 진언수행자로 제도한 일이다. 지금도 시누이는 두고 두고 고마워 한다고 한다.

김회장은 서울경인 지회장을 비롯해 총지사 회장, 등 종단 관련 직함이 많다. 그래선지 늘 종단과 교도들 걱정이다.

"사는 날까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다 가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필요한 일을 해 드리고 빛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布施)하고 애어(愛語)하고 이행(利行), 동사(同事)하는 사섭법(四攝法)의 실천이 아니던가.

김회장은 종단 교화활성화와 관련한 아이디어도 많다.

참회, 정진하면 행복 깃들어

"서울 지역 사찰의 여유 땅에 실버센터를 건립해서 노인 교도님에게 수행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거처할 곳이 있다면 밥도 손수 끓여 먹고 정진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 뵈러 주말같은 때 자손들도 모이게 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방 같은 것만 마련해 주고 수준과 현실에 맞는 법문도 조금씩 들려 주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도 교화가 될 수 있을 것 아녜요?"

◇김은숙 서울 경인 지회장 / 총지사 회장

행주좌와에 늘상 진언을 염하는 김회장은 월초불공 같은 때는 하루 일곱 시간 정진을 꼭 채운다. 49일 불공 첫 주였던 지난 주 눈이 내리는 어스름 저녁에 총지사 마당에서 김회장을 만났다. 전날 가정불공 준비로 몸살기운도 있는 듯 한데 칠순 나이로 눈길을 뚫고 절에 나온 것이다. 아무쪼록 신도들에게 도움되는 기사 써달라고 연신 걱정이다. 그럼 한 말씀 더 해 주십사 했더니 이렇게 말한다.

"우리 종단에서 늘 말씀하는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된다는 인과법을 철저히 믿고, 인욕과 하심으로 참회하고 정진하다 보면 행복이 깃들고 깨달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윤우채 기자

◇남편과 함께

◇며느리들과 막내딸

◇세아들, 사위 손자 손녀들

◇정각사에서

◇총지사 꽃꽂이 봉사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통리원 전화 02)552-108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